

우즈바시라 기둥

박물관 중앙 로비에는 과거 13 세기에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본전을 받들었던 거대한 두 나무 기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 기둥은 2000 년부터 1 년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야쓰아시몬(본전 입구)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지금의 본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본전은 9 개의 기둥을 3×3 으로 배치한 구조였습니다. 발굴 조사를 한 결과 9 개의 기둥 중 중앙의 '신노미하시라', 정면의 '우즈바시라', 남동쪽의 '가와바시라' 등 3 개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. 나머지 6 개의 기둥 유구는 지금의 본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아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10 세기의 어린이용 교과서에 따르면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본전은 과거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되어 있으며, 그 높이는 48m 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기둥이 실제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기록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. 삼나무 통목 3 개를 금속 줄로 한데 묶은 형태의 기둥은 크기가 직경 3m 에 이릅니다. 기둥의 크기와 발견된 장소는 13 세기부터 16 세기에 걸쳐 작성된 『가나와노고조에이사시즈』(본전의 평면도)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합니다. 게다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결과, 1248 년 본전을 조영할 당시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기둥은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. 발굴 조사 결과, 과거 특정 시기에 본전 주변에 있던 두 개의 개울물이 하나로 합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이로 인해 목재가 물에 잠기면서 부패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.

전시품에는 실제 우즈바시라 기둥과 신노미하시라 기둥의 실물 크기와 동일한 복제품(실물은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보물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)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가와바시라 기둥은 발견된 장소에 다시 묻혔습니다.